

보도일시

배포즉시

배포

2024. 10. 7.(월)

동해해수청,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동해·묵호항 등 관할 구역의 항만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, 수상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선박수리·공사작업행위, 위험물 반입·하역행위, 불법어로 행위 및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 항만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이다.

특히, 항만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미이행, 위험물 반입신고 미필, 불법 수리 및 공사(작업)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, 동해해수청은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항만안전에 힘쓸 계획이다.

한편, 선박입출항법 관련 동해해수청 단속실적은 최근 3년간 총 44건으로, 불법수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불법어로행위 9건, 위험물 취급 위반 7건 순으로 집계되었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	책임자	과 장	김진식 (033-520-6231)
		담당자	주무관	송봉근 (033-520-6241)
			주무관	강진철 (033-520-6322)